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4월 13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알코올 음료 통제법 실무그룹 권고안 발표

*뉴욕주의 알코올 법률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권고안은 법령 정비, 면허 통합 및 주의 블루
법률 현대화를 포함*

"Southern Tier Soaring"의 농업 기둥을 토대로 한 노력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80년된 알코올 음료 통제법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할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다양한 알코올 음료 산업 전문가 그룹인 알코올 음료 통제법 실무그룹의 최종 보고서 및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변경은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Southern Tier Soaring"의 주요 요소인 수제 음료 및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 행정부는 레드테이프를 절단하고, 부담스러운 권고사항을 철회하여 이 산업이 뉴욕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번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그룹의 노고와 이 진보를 지속할 방법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멤버들에게 감사하며 그 소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제3차 와인, 맥주, 증류주, 과일주 서밋 후에 **Cuomo 지사는** 금주 철회 후 1934년에 제정된 이 법령이 시대에 맞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업소들이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의 알코올 음료 통제법 현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주지사는 업계 변호사, 수제 제조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커뮤니티 위원회 대표 및 기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실무그룹을 조직하여 법률을 검토하고 현대화할 최선의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4회의 공개 회의를 통해 이 실무그룹은 법률을 개정, 통합 및 현대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10여건의 권고안에 합의하였습니다:

- **알코올 음료 통제법 정비:** 최근에 다수의 입법 개선이 시행되었지만 실무그룹은 전반적 법령이 업소가 필요로 할 면허의 타입이 아닌 음료 타입별로 조직된 법률의 짜집기로 남아 있어서 혼동과 오해를 야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규제 업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실무그룹은 법률을 일관성 있게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고서는 법령 정비를 위한 개요안을 포함합니다.

• **면허 통합:** 구내 업소(식당, 바, 선술집 등)의 알코올 판매를 승인하는 9가지 면허가 현재 알코올 음료 통제법의 3개 조항에 흩어져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현재의 구조가 혼란을 야기함을 발견하고 면허 수를 3종으로 줄이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맥주 면허; 두 번째는 포도주와 맥주를 위한 면허; 세 번째는 맥주, 포도주와 증류주를 내놓는 업소를 위한 면허. 법령 변경안은 특정 면허 적격 업소의 타입을 명시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 **뉴욕주의 블루 법률 현대화:** 알코올 음료 통제법은 일요일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구내 업소(식당, 바, 선술집)에서의 알코올 음료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실무그룹은 일요일 판매 관련 두 가지 옵션을 권고합니다; (1) 전주적 시간을 낮 12시부터 오전 8시로 개정, 또는 (2) 구내 면허로 일요일 정오까지 서빙할 수 있는 허가 신설.

• **수제 제조자 지원:** 2012 와인, 맥주, 증류주, 서밋에서 예컨대 위스키도 제조하기 원하는 작은 맥주 양조장에 부과될 완전 별도 설비를 포함한 엄청난 추가 부담을 인식한 Cuomo 지사는 동일 장소의 복수 제조 면허를 금지하는 주 주류청의 정책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복수 면허를 보유한 업소들은 여전히 각각의 별도 면허를 위한 서류 및 갱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업소의 필수 서류를 줄이기 위해 실무그룹은 수제 제조 면허를 한 신청서로 통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허료를 줄이고 수제 제조자를 위한 소구자 허가를 위한 필수 채권을 철폐하고 와이너리가 와인을 리필 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실무그룹은 고객이 부분적으로 완성된 포도주 병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와이너리와 농장 와이너리를 승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무그룹의 완전한 보고서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outhern Tier Soaring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Southern Tier Soaring”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2012년 이래 이 지역에 이미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본 계획을 위한 토대를 놓아 인재를 끌어 모으고 사업을 키우며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Binghamton, Johnson City, Corning 같은 곳을 발전과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와 함께 Southern Tier Soaring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이상을 충분히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기에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것처럼 10,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청 청장 Vincent Brad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산업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장시간의 토의와 토론의 결정체입니다. 이 권고안의 시행은 이 중요한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의 즉각적 개선을 이끌고 음료 산업의 리더로서의 뉴욕주 지위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료 산업을 위한 Cuomo 지사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ABC 법률에 절실히 필요한 변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많은 세심한 생각과 고려가 담겼으며 그 채택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새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문을 열어주어 이미 붐을 일으킨 뉴욕주의 알코올 음료 산업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Binghamton University 총장 겸 **Southern Tier** 지역 경제개발 협의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inghamton 지역은 우리 문화와 경제의 활기에 매우 중요한 소수의 양조장들이 있어서 매우 행운입니다. 이 산업 부문을 관장하는 수 십년 된 뉴욕주 규칙을 다루기 위한 Cuomo 지사의 이니셔티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엄청난 걸음입니다. 우리의 농업 자산과 소규모 기업을 활용하는 것은 Southern Tier를 위한 업스테이트 재활성화 이니셔티브 전략의 핵심에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번영하도록 돕기 위한 어떤 권고안도 환영합니다."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 이사장 **Jim Trezis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업계 파트너로 하여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제에 반동적인 누더기 법률을 검토하도록 시킨 Cuomo 지사의 전향적이고 상식적인 접근법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주류청의 Vincent Bradley 청장과 그의 동료들은 다양한 이권이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조율하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적의 '기업가적 정부'입니다."

Empire State Restaurant and Tavern Association 회장 **Scott Wex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무그룹의 보고서는 산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익 그룹이 협력할 때 성취할 수 있는 진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수 천 선술집 및 식당들은 실무그룹을 소집하신 Cuomo 지사와 Bradley 청장께 감사드리며 이 만시지탄의 권고안을 법률로 전환하기를 고대합니다."

Brooklyn Brewery 창업자 **Steve Hind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ABCL 실무그룹에서 봉사할 기회를 가져 감사했습니다. 실무그룹은 80여년 전에 씌어진 법률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업계, 법률 및 소비자 전문가 그룹을 규합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권고안은 면허를 득하고 주의 ABC 법률 준수에서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철폐합니다. 권고안은 ABC 법률을 21세기로 데려와 포도주, 과실주, 맥주, 증류주 산업이 뉴욕주 경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Danow, McMullan & Panoff 파트너 **Keven Danow**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뉴욕주를 비즈니스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권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지사의 요청으로 Bradley 청장은 알코올 음료법을 검토하여 우리 시민이 향유하는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법률을 간소화하고

개선할 방법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할 알코올 음료 산업 구성원 실무그룹을 꾸렸습니다. 주지사와 Bradley 청장은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NYC Hospitality Alliance의 고문 Robert Book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의 수 천 식당, 바, 나이트클럽 및 호텔을 대표하는 NYC Hospitality Alliance는 실무그룹에 속하여 영광이었으며 우리는 협조적 토의를 이끈 주지사와 SLA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ABC 법률에 필요한 개혁, 즉, 업계, 우리 종업원과 우리 업소들을 자주 방문하시는 수 백만 뉴욕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득이 될 개혁으로 이끌 것입니다."

Tuthilltown Spirits 창업자 겸 증류 장인인 Ralph Erenz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률 개정 실무그룹에서 뉴욕주의 신홍 장인 음료 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기회를 주신 주지사와 Bradley 청장께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명료한 법조문을 제공하고 신규 생산자들을 위해 불필요한 진입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뉴욕주 증류주, 포도주, 맥주 및 과실주가 번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변경은 음료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도 포함합니다."

New York State Liquor Store Association 회장 Tom Edward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업계 리더들을 규합하여 공통의 근거를 찾는 것은 진정 만족스러운 경험입니다. 뉴욕주 주류점 협회와 그 회원점을 대표하여 Cuomo 지사와 Bradley 청장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New York State Beer Wholesalers Association 회장 Steve Harr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대규모 제조업체로부터 신생 소규모 수제 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표자 그룹을 소집해 80년된 ABC 법을 검토하여 현대화하기 위한 권고를 하도록 하신 Cuomo 지사와 Bradley 청장께 감사드립니다. 이 권고안은 우리 주의 3단계 시스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보전하면서 지난 5년에 걸쳐 이룩한 진보를 토대로 이 중요한 산업을 더욱 튼튼히 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Food Industry Alliance of New York State 총재 & CEO인 Michael Ros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코올 법률을 현대화하여 대중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호함이 없이 거래를 부담스럽게 한 많은 낡은 조항을 철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신 Cuomo 지사와 Bradley 청장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전역의 식품 상점 운영자들은 이 잘 기초된 제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들인 시간, 노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건배합시다!"

Buchman Law Firm 매니징 파트너 Mark Koslow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무그룹이 뉴욕주의 알코올 음료 산업과 특히 신생 장인 음료 부문을 위한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초기 어젠다와 후속 개정 그리고 코멘트를 규합하기 위해 수고하신 주지사, Bradley 청장과 그의 뛰어난 동료 및 요원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명료한 법조문을 제공하고 거래를 위해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업계를 위해 현재 및 장래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입니다. 모든 참여자들의 노력은 칭찬 받아야 합니다."

North American Breweries 선임고문 **Kelly Digg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알코올 음료 통제 법률을 간소화하여 우리의 맥주, 포도주, 증류주 및 과실주 업계가 지속 번영하도록 도울 태세에 있습니다. 업계 구성원들이 숙고하여 권고할 수 있게 한 그러한 참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법을 창조하신 우리 지사와 **Bradley** 청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